



미 증시, 부채한도 및 인플레이 부담 완화 등으로 장중 상승 전환

미국 증시 리뷰 및 주요 이슈

6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9 월 ADP 민간 고용 호조에도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가능성에 따른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공화당의 부채한도 유예 제안 소식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다우 +0.3%, S&P500 +0.4%, 나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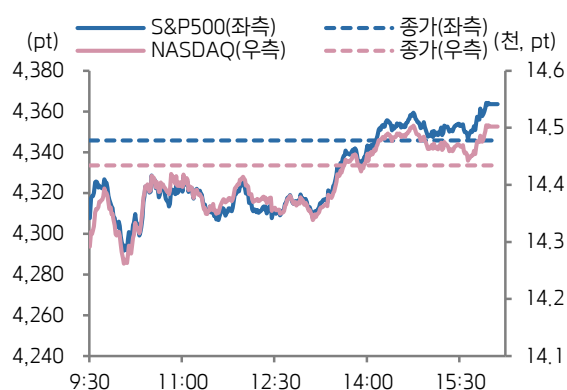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유틸리티(+1.5%), 필수소비재(+1.0%), 부동산(+1.0%) 등이 강세, 에너지(-1.1%), 소재(-0.3%), 헬스케어(-0.2%) 등이 약세.

9 월 ADP 민간부분 신규고용은 56.8 만건으로 전월(34.0 만건) 및 예상치(42.5 만건)을 큰 폭 상회. 제조업 고용이 10.2 만건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서비스업 고용이 46.6 만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견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 동시에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공급을 진행 시 유럽향 가스 공급은 사상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발언으로 그간 폭등세를 보였던 천연가스는 하루만에 10% 가까이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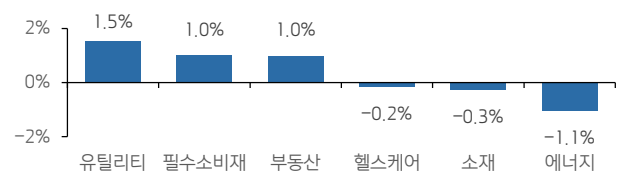
공화당 상원 매킨니 원내 대표는 민주당이 유발한 위기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부채한도를 12 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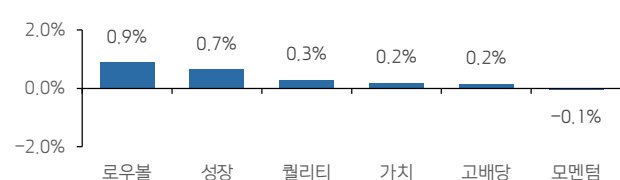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63.55	+0.41%	USD/KRW	1,192.70	+0.33%
NASDAQ	14,501.91	+0.47%	달러 지수	94.24	+0.28%
다우	34,416.99	+0.3%	EUR/USD	1.16	-0.02%
VIX	21.00	-1.41%	USD/CNH	6.45	+0%
러셀 2000	2,214.96	-0.6%	USD/JPY	111.42	+0.01%
필라. 반도체	3,238.79	+0.3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547.49	+0.59%	국고채 3년	1.720	+7.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397	+10.2bp
Eurostoxx50	4,012.65	-1.3%	미국 국채 2년	0.294	+1bp
MSCI 전세계 지수	709.69	-0.1%	미국 국채 10년	1.521	-0.5bp
MSCI DM 지수	3,015.95	-0.0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27.13	-0.76%	WTI	77.43	-1.9%
MSCI 한국 ETF	77.18	-2.17%	금	1761.8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1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1.5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선거래일 급락 과도에 따른 기술적 및 저점매수세 유입 가능성 2. 장 개시전 동시호가 및 장 중의 신용, 스타론 등 레버리지 베팅 관련 반대매매 출회 가능성 3.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국내 관련 에너지 및 소재업체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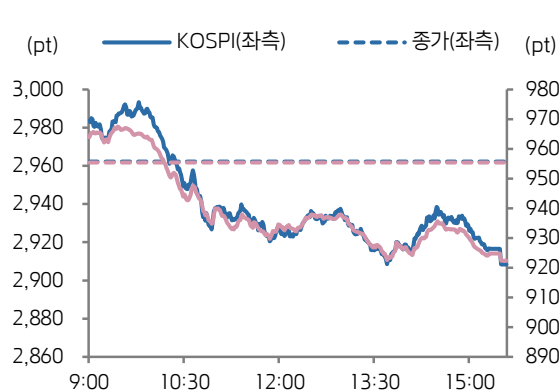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부채한도 연장안을 제시한 공화당 상원 대표의 발언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미 정치권에서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게 만들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일례로 미국의 CDS 프리미엄은 9 월 이전까지 10bp 미만의 안정적인 흐름을 연중 내내 유지했으나 10 월 초 현재 27bp 로 급등한 모습. 이는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채한도 협상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기존에 비해 더 높은 자본조달 비용을 부담해야함을 시사. 따라서,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교착상태 지속 시 경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치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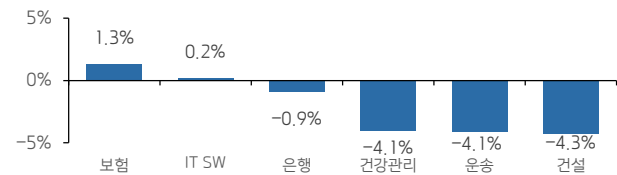
물론 10 월 18 일로 시한이 설정된 부채한도 협상을 12 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디폴트 불확실성이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은 사실. 그럼에도 최근 주요국 증시의 불안을 증폭시켰던 요인이 10 월 중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채한도 연장 소식은 증시의 불안심리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진정됐다는 점도 공급난발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

선거래일 연중 저점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미국의 부채한도 불확실성 완화, 인플레이션 급등 부담 완화 등 대외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도 최근 시장 불안 요인에 해당했으나, 바이든과 시진핑의 연내 화상 정상회담 개최 소식까지 전해졌다는 점이 이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 다만, 선거래일 단기간에 급락한 만큼, 장 초반 신용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변동성 확대에는 유의할 필요. 또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그간의 손실 축소를 위해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물량들도 일시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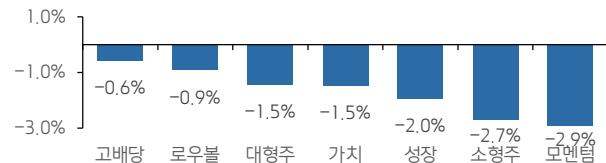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